

4월 30일 진행된 연등행렬에서는 장엄등 150여개와 수만개의 행렬등이 서울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연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연등회 관심 고조…일상회복 신호탄되다

4월 30~5월 1일 불교계 첫 '대면 대규모' 행사

부족한 준비 일정에도 성황
예상 넘어선 폭발적 관심도
도심속 수놓은 연등에 '호응'
가족단위·외국인 참여 눈길

글=송지희 · 임은호 기자

'불기 2566년 연등회' 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재개된 불교계 대면대규모 행사다. 갑작스레 변경된 방역지침에 대면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까닭에 준비 일정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봉행위원회를 비롯한 각 소임자와 참가자들의 열정은 3년만에 재개된 연등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는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등에 직접 참가하는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관람객과 현장에서 참가한 시민수가 급증해 일상회복을 향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연등회는 4월 30일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한마당에 이어, 5월 1일 전통문화마당으로 진행됐다. 연등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종단 지도자들과 조계사 · 봉은사 등 주요사찰, 포교사단 · 국제포교사회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으로 시작한 연등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의 개회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의 경전봉독,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의 기원문 낭독,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평화기원 메세지로 진행됐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환희와 자비가 넘치는 날"이라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요익케 하고 구제하고자 했다. 연등행렬에 참가하는 불자들의 환희심이 널리 전달돼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깃들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연등회의 메인법석인 연등행렬은 시작부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해가 저물고 한층 추워진 날씨에도 연등행렬 구간의 거리마다 행렬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전에 비해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도, 서울 주요사찰과 불교계 단체 50여곳에 소속된 불자들이 직접 제작한 장엄등 150여개와 수만개의 행렬등이 서울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연출했다.

어린이를 위한 장엄등도 단연 인기의 중심이었다. 관음종의 폴리등, 로보카 로이등, 로보카 엠버등, 로보카 헬리등을 비롯해 한마음선원의 스누피와 연등놀이등이 올해 주목받는 대표적인 연등으로 꼽혔다. 장엄등이 지나는 곳곳에서 박수소리가 이어졌고, 연등행렬 참가자들은 행렬등을 흔들며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전했다.

발우등과 코끼리 등을 들고 석가모니정근을 하는 중앙승가대학교와 석림회 스님들의 뒤를 이어 등장한 어린이 · 청소년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동자 · 종녀 장엄등 뒤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조계종립 은석초 · 부여중 · 부고 등 종립학교 학생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어린이들이 태극초롱등과 별등, 오색팔모등을 들고 환한 웃음을 보이면, 거리에 앉아 행렬을 기다리던 시민들도 환호했다.

아들과 함께 연등행렬을 찾았다는 박은혜(40)씨는 "아이가 좀 걸어다닌 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연등회를 보여주지 못했다. 올해는 연등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다"며 "날이 생각보다 너무 춥긴 했지만 거리에서 함께 행렬을 기다리고 또 함께 환호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라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했다"고 전했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동대문에서 종각으로 도착한 연등행렬은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오후 9시 종각사거리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회향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 구분을 뛰어넘은 대화합의 법석이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흥겨운 찬불가에 맞춰 손과 손을 잡았고 눈과 눈을 마주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지만, 거리두기의 간격이 좁아진 만큼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손을 맞잡고 신나게 축제를 즐기던 대중들은 사회자의 안내에 맞춰 강강술래로 신명을 나눴다. 쏟아지는 꽃비 아래 마주한 웃음에 마음은 하나로 모였다.

프랑스 출신 파비앙 씨는 "한국에 온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한국에 와있음을 실감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모양의 빛나는 등을 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특히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인사하고 웃고 즐기는 순간이 인상적이었다"고 환한 미소를 전했다.

다음날인 5월 1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전통문화마당' 이 진행됐다. 100여개 부스에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전통마당' 은 아이들을 대동한 가족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 컵으로 작은 연꽃등을 만들고 사진이 새겨진 도자기 컵을 만드는가 하면 색색의 구슬로 합장주를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한편 올해 연등회는 불교계 방송사상 최초로 불교TV와 BBS불교방송이 공동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했다. 이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전국 불자들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연등회를 함께 즐기며 감동과 환희의 소감을 남기는 등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첫 보물 지정 환영법석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어 가치 · 의미 전해 눈길
지현 스님 "대중 원력 감사"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승격됐다. 목조여래좌상은 오랜 세월 '조계사 작은 부처님' 으로 불리며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온 만큼, 이를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8일 대웅전에서 '목조여래좌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지정 경축법회' 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법당의 건립역사와 함께해 온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은 일제 치하에서 조선불교 자주성과 정통성을 품은 상징적인 불상으로 자리를 지켜왔다"며 "역사적, 예술적 의미와 상징성, 아름다움을 갖춘 것은 물론,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신도 여러분의 희노애락과 함께 해오면서 오랜시간 불자들의 신행의 중심에 자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법회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법석으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의 위상도 함께 높이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계사 목조여래불상은 조선중기 왕실 불사로 도갑사 대웅전에 봉안됐던 불상이다. 1938년 조선불교 총본산 건립에 맞춰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운됐고, 이후 도갑사 화재로 불상들이 소실되면서 유일하게 화마를 피한 불상으로 남아 그 상징성을 계승해 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목조여래좌상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원력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그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을 비롯한 조선시대 전적 등 5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인류평화 위한 방생순례…월정사서 시작

상월결사, 4월 27일 명상마을부터 상원사까지

오대산 선재길 등 12km 행선
순례 最多 1500여 대중 참여



인류평화를 기원하고 불교중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두 번째 평화 순례가 '방생' 을 주제로 펼쳐졌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4월 27일 평창 월정사와 상원사 등 오대산 일대에서 '평화 방생순례' 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순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전 종전 및 평화 기원을 주제로 열린 대흥사 순례에서 한걸음 더 확대된 '세계평화를 위한 마음방생' 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스님 300여명, 재가자 1200여명 등 순례 최다 인원인 1500여명이 참여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순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불교의 현실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마음이 곧 국토를 맑게 한다는 불교정신에 입각해 이 시대 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이끌자는 원력으로 순례를 준비했다"고 순례단을 환영했다.

입재식 후 1500여 대중들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출발하여 전나무숲길에서 행선, 월정사에서 한암대종사 탄신다례재를 지내고, 상원사까지의 오대산 선재길을 따라 걸었다.

한편, 상월결사는 '평화 방생순례' , 백양사와 법주사에서 이어간다.

평창=노덕현 기자

올 한해 만사형통한 한해를 발원합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전화 02)3218-4800 | 팩스 02)544-2141